

**쇠고기 이력제**

**추석 성수기 기간 중 대국민 서비스 및 민원 처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설치된 이력지원실(1577-2633)에서는 추석성수기 동안 소 및 쇠고기 거래량 증가에 따른 많은 정보처리 요청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난 '10. 9.4~9.20 동안 특별상황근무반을 편성, 평일 평상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 및 휴일까지 근무조를 운영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3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서울지역**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가속도**

국내 최대 규모의 육류시장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성동구에 따르면 2016년까지 남고 지저분한 마장동축산물시장을 국제적 축산물 특화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을 찾는 시민과 축산 화물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등 쇼핑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신선한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소고기거리 조성 등 시장의 외형과 시설이 현대화된다. 또 축산물 유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 친환경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6년 뒤 청계천 생태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지역**

**영월서 열린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가 37회를 맞아 도내 축산인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영월군 농강 둔치 행사장에서 열렸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개막식에 이어 한끼당 공연·소코뚜레 만들기·로네오 경기·도그 쇼(dog show)·축산물 시식·한우 암소 경진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한우 그리기 그리기·달구지 체험·가축 전시회 등 이색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마지막 날인 2일에는 한우 암소 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박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1968년 시작된 이 행사는 축산관련 행사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며 "이 행사는 강원도의 청정자연과 도내 축산인들의 열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강원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구미시, 한우전자경매시장 개장**

경북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선산을 교리 선산가축시장에서 한우전자경매시장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월 3일 밝혔다. 이번 개장한 전자경매 시장은 기존 선산가축시장 부지 1만1천17㎡에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2천500만원의 보조지원과 축협 자부담 2억1천500만원으로 총 3억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공사는 지난 2009년에 착수해 2년 가까운 공사 끝에 200두 계류 규모의 경매장 752㎡와 경매시스템을 설치해 전자경매시장으로써 틀을 갖췄다. 이에 따라 매월 한번씩 열게 될 송아지 경매를 통해 유통경쟁 우량 송아지가 많이 거래돼 한우 사육기반이 강화되고 중간상인이 배제된 공정한 거래로 실질 농가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남지역

## 경남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650억원 투입

경남도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6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지난 10월 1일 밝혔다. 도는 이 자금을 사료작물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30억원), 사일리지(가축 거울 먹이로 말리지 않고 저장하는 풀) 12만톤 제조(72억원), 조사료 생산장비 580대 공급(120억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 총체 벼(사료용 벼, 벼가 70~80% 익을 때 수확해 가축 사료로 이용)의 사일리지 제조기술을 개발해 조사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0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사료용 총체 벼를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기술 시연회를 산청군 신안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트랙터와 자주식 원형베일러, 램핑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활용해 원형곤포 사일리지를 만드는 기술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사료용 총체 벼를 사일리지로 만들어 보관하면 조사료생산 중대와 함께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지역

## 청원군, 가을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충북 청원군은 구제역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해 가을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군은 10월까지 월 2회 실시하던 공동방제단 운영을 월 5회로 확대 실시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해 예찰요원 19명을 우제류 사육농가에 매일 투입해 예찰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의 소독과 예찰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군이나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구제역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 검역원에 필히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상 축산농가나 축사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제주지역

##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 ‘청신호’

한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구제역 파동’에도 끄떡없는 2차 가공품 수출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월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지난 9월 27일 한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회복돼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는 지난 9월 28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제주산 돼지고기가 다시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무토 마사토시 대사는 “본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화답,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지난 9월 30일 일본 수출 재개를 앞둔 전략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10월 중 축산식품 수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맡을 수출법인을 설립하고 2차 가공품 생산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